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갭이어 프로젝트]  
**도농상생 갭이어프로젝트**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집행위원장  
대구사회혁신가네트워크 대표 박근식

1. 혁신이 뭐라고.

한 30년 전 무렵이든가, 혁신이라는 생경한 용어를 접한 듯합니다.

그때는 불꽃 같은 혁명의 시대입과 동시에 혁명이 어두운 역사의 뒤편길에 묻히는 시대였으니, 그저 혁명과 대치되는 정치적 개념 정도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후 몇 번 인가 귀동냥 한 적이 있으나, 미련하게도 여전히 미몽입니다. 겸양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 스스로의 상태가 이렇진대, 혁신에 대한 어쭙은 이야기를 하자니 난감합니다. 어쨌든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삶이 무엇’이라 정의할 수 없을 경우까지도 소중하다면, 혁신 또한 그러하리라 믿어 봅니다.

2. 혁신은 꽃길입니다.

혁신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정답도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고 해서, 추상적 개념에 머물러서도 안 되겠지요. 서로의 처지와 환경이, 목표와 가치, 조직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혁신이 골치 아픈 이유입니다. 심지어, 일상의 수많은 혁신 담론은 혁신 자체를 피곤하게 만들곤 합니다. 공익, 마을,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청년, 협동 등 익숙한 단어들에 던지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혁신조차도 성과지표로 만들어야 할 지경이니, 혁신가의 하루

하루가 뭐 그리 행복할까요. 혁신의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결과만 낼 수 없다는 두려움까지 있습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혁신이란 말조차도 상투어가 될 수도 있으니, 누가 혁신을 하고자 할까요. 혁신은 가시밭길도 아니지만, 꽃길은 더 더욱 아닌 것 이지요.

3. 즐길 수밖에.

혁신이 삶과 밀착 되어 있는 한, 작은 혁신조차도 밀바닥과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야 혁신은 현장성이라는 꽃과 사람이라는 구체성을 잉태합니다. 혁신이 다양한 실험과 실패가 만든 행동전략인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혁신의 성공만 있고, 실패한 혁신은 이미 혁신이 아니라고만 한다면, 그래서 모두가 실패를 두려워 한다면, 누가 도전 할까요? 물론, 혁신의 개념에는 더 나은 방법을 통한, 더 많은 수혜자를 만드는 실행이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혁신가의 삶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정책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걷는 것일 겁니다. 혁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만드는 건강한 제도이니깐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혁신가의 삶이 스스로와 타인의 불안한 영혼을 극복하는 과정이라면. 어렵더라도 그저 즐길 수 밖에요.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집행위원장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처 사회공헌부장 심은정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크게 영향을 받은 해였습니다. 사회 불균형, 급속한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었던 여러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증폭되는 한편 새로운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시 한번 공동체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수가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미래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 보다 신속하게 상황을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 공공기관, 지방정부 Tri-sector의 만남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바람직한 연결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온라인 의제 포럼 진행, ON택트 사회혁신컨퍼런스 개최 등 새로운 방식으로의 협업 논의를 실행하였고, 무엇보다 코로나 재해 극복을 위한 지역에 적합한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문제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들의 인식도 다양한 가운데,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각자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매칭하여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한 단계 성장한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지역의제를 선정하고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한 크고 작은 성과들은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현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대구지역사회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바람을 갖습니다.

작은 것들을 연결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대구 지역사회에서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집행위원장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장 이은아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보고서」 발간을 축하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복잡하고 새로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발굴에 참여하고, 민·관·공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력과정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여러 가지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실행 주체들과 협업 테이블을 구성하여 21개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번 발간되는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보고서」는 21개 지역문제들에 대한 논의와 해결과정들을 담고 있어, 우리 지역사회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시도 및 성과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지역사회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씨앗이 되어 우리 대구가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큰 꽃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도 대구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 의제 이해하기

### 01. 의제 소개

의제 추진 배경 및 목적 15P

의제 실행 방안 17P

### 02. 추진체계

추진체계 한 눈에 담기 19P

실행주체 소개 20P

둘

## 의제 진행 과정 파헤치기

01. 의제 추진 과정 한 눈에 담기 23P

### 02. 논의 과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2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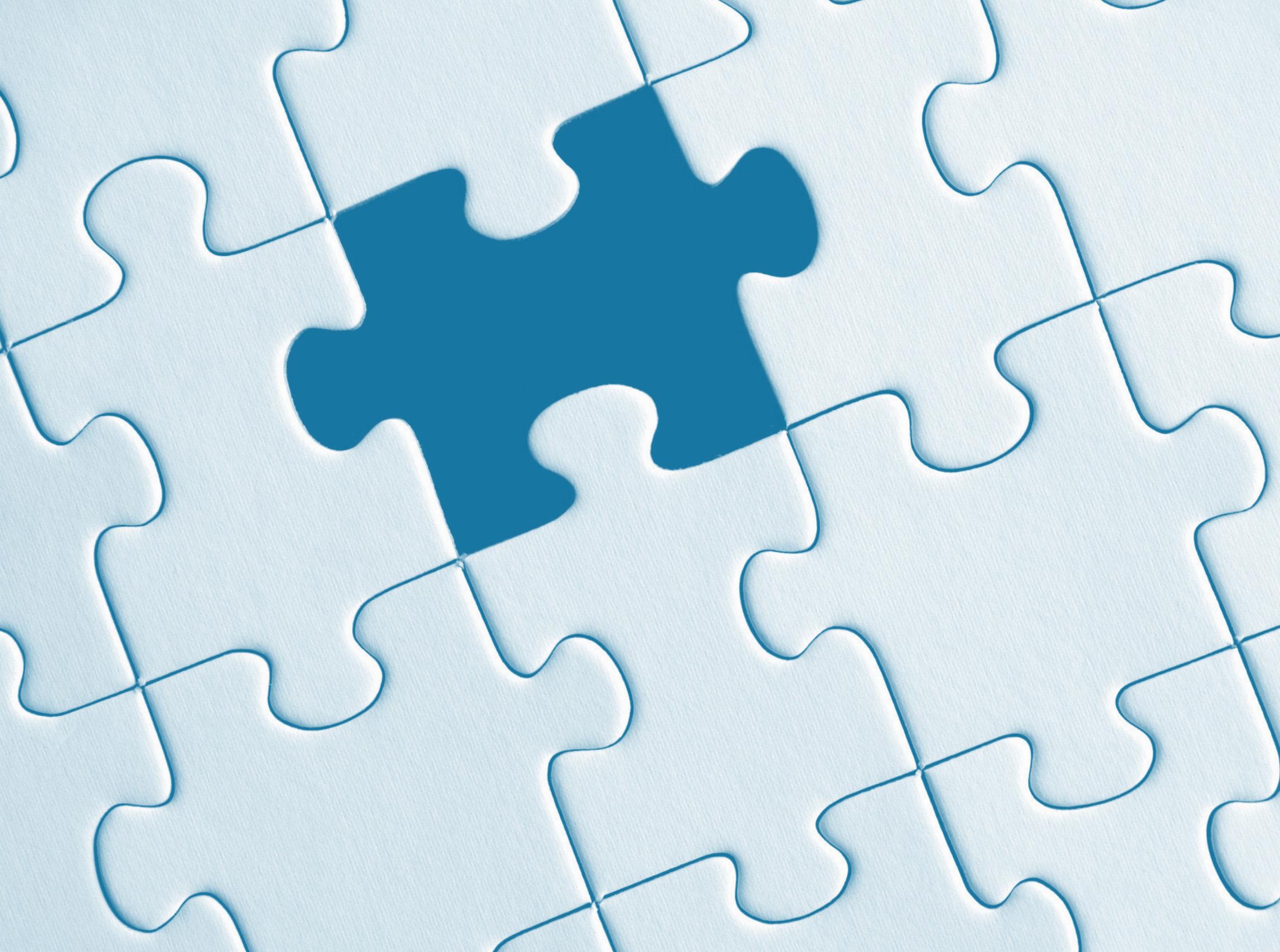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47P

셋

## 의제 내다보기 이해하기

01. 의제 실행 성과 53P

02. 향후 의제 실행 계획 55P



하나

청년

# 의제 이해하기

## 01. 의제 소개

의제 추진 배경 및 목적

15P

의제 실행 방안

17P

## 02. 추진체계

추진체계 한 눈에 담기

19P

실행주체 소개

20P

갭이어

## 01 의제소개

#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갭이어 프로젝트 도농상생 갭이어프로젝트

### 갭이어란?

갭이어(Gap year)란 학업을 잠시 중단하거나 병행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흥미와 적성을 찾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미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중등 교육을 끝내고 고등교육을 받을 예정인 학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회 초년생들이 자아발견을 위해 잠시 쉬는 시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한 시간

맹목적인 성과지향과 끝없는 경쟁 사회에서 우울증이나 공황 장애를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처럼 사회가 만든 병은 의욕적이던 개인을 회의와 무기력감에 빠지게 합니다.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삶의 여유를 갖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도시에서의 삶은 쉽게 여유를 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열심히 달려가다가 놓쳤던 것들을 되찾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갭이어는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가지고, 오롯이 본인에게 집중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삶의 방향성을 찾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갭이어 프로젝트

갭이어의 장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원래의 일상을 접고 갭이어를 가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제는 도시근교 농촌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는 갭이어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본 의제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하고, 참가자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찾아, 잊고 살았던 자아와 현실의 틈을 이어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의제 실행 방안

### 1. [갭이어 프로젝트] 실행 공간(도시근교 유희공간) 확보

- ① 도시 근교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도농상생의 방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 2. [갭이어 프로젝트] 실행 주체 및 운영 방안 마련

- ① [갭이어 프로젝트] 실행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협업테이블 구성
- ② [갭이어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 모집 및 선정

### 3. 도농 상생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교류

- ① 지역 브랜딩 및 지역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주민들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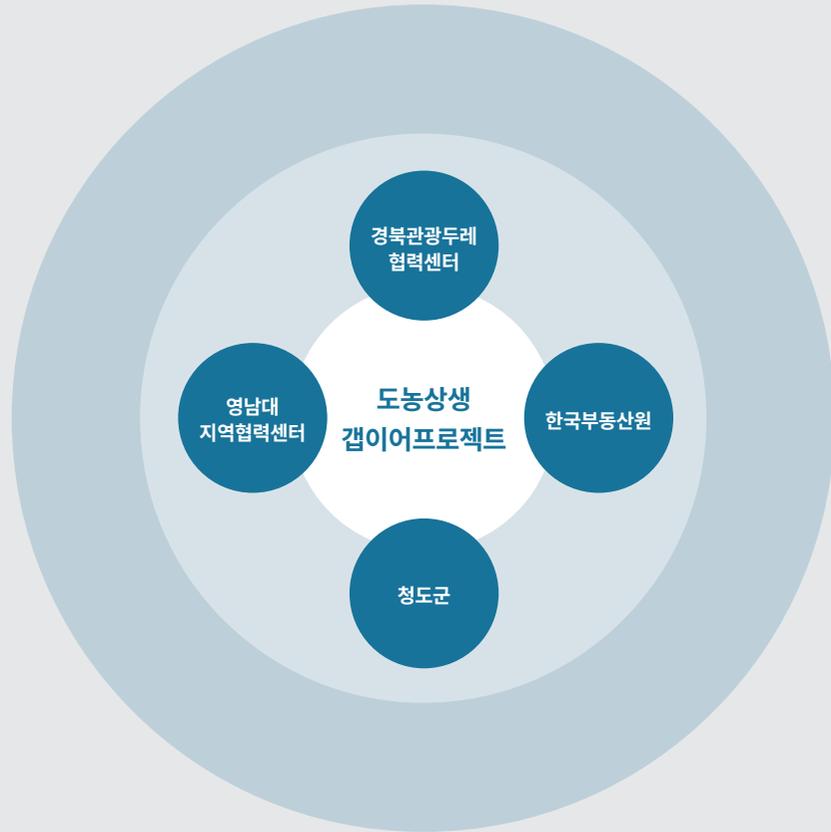
## 실행계획 (추진일정별)

|       |   |
|-------|---|
| 7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농 상생 및 청년 진로 활동 방향 설정</li> </ul> <b>온라인 의제포럼: 청년</b>  |
| 8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li> </ul> <b>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소: 온라인채널(Zoom, Youtube)</li> <li>- 내용: 도농상생 및 청년 진로 활동 지원 논의</li> </ul> |
| 8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제 실행 방향 논의를 위한 이해관계자 미팅</li> </ul> <b>이해 관계자 미팅</b>   |
| 1~4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제 실행을 위한 유희공간 조사 및 조성</li> </ul> <b>도시근교 유희공간<br/>개소 준비</b>   |
| 4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제 실행을 위한 유희공간 운영 (카페공간)</li> <li>• 의제 실행을 위한 유희공간 운영 (숙소)</li> </ul> <b>도시근교 유희공간 운영</b>  |
| 5~6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제 실행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li> </ul> <b>갭이어프로젝트<br/>실행을 위한 논의</b>  |
| 7~8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기관과 협력하여 갭이어 프로젝트 단기<br/>(2박 3일 또는 주 1회 등)로 진행</li> </ul> <b>갭이어프로젝트(단기)</b>   |
| 9~1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갭이어<br/>프로젝트 진행</li> <li>• 지역과 상생하는 프로그램 연계</li> </ul> <b>갭이어프로젝트(장기)</b>  |

21년

02

추진체계 한 눈에 담기



| 연 번 | 조직(단체)명             | 역 할           | 비 고 |
|-----|---------------------|---------------|-----|
| 1   | 경북관광두레 협력센터         | 의제 실행 기획 및 운영 |     |
| 2   | 영남대지역협력센터(LINC+)    | 의제 실행 참여자 연계  |     |
| 3   | 한국부동산원<br>(구.한국감정원) | 의제 실행 자원 연계   |     |
| 4   | 청도군                 | 의제 실행 자원 연계   |     |

실행 주체 소개

1

경북관광두레 협력센터

설립목적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체 발굴, 사업화 계획, 창업과 경영 개선 지원

비전

주민사업체 밀착지원과 지자체와의 연계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주요사업

- 주민사업체 지원(지속관리, 신규발굴)
- 지역여행 계획(로컬투어랩, 홀홀술술 프로젝트)

2

영남대지역협력센터(LINC+)

설립목적

도시재생, 마을 꾸미기, 마을 공동체 조성 등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와의 협업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비전

대학이 지역사회혁신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서, 지역 사회의 수요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에 나감에 따라 지역사회의 가치를 발굴하고 창출하는 데 있다.

주요사업

- 대학-지역 협력+지역사회 공유가치
- 생활 실험실+사회혁신가
- 역사문화콘텐츠+사회적 디자인
- 시민대학

3

한국부동산원(구.한국감정원)

설립목적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비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 전문기관

주요사업

- 부동산가격 공시
- 부동산조사·통계
- 부동산 시장관리
- 감정평가 시장관리
- 보상수탁
- 도시재생사업
- 녹색건축
- 부동산 R&D
- 시세정보
- 청약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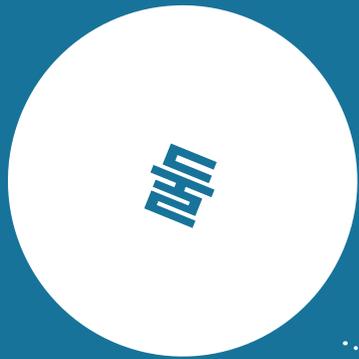
4

청도군

설립목적

비전

주요사업



목적



청년

# 의제 진행 과정 파헤치기

---

|                      |     |
|----------------------|-----|
| 01. 의제 추진 과정 한 눈에 담기 | 23P |
| 02. 논의 과정            |     |
|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 25P |
|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 47P |



갭이어

# 01 의제 추진 과정 한 눈에 담기

**\* 사업추진방식 논의**  
 (사업계획 수립, 지원공간 탐색  
 민간협업단체 사업연계)

1단계

6월 11일

**1차 협업테이블**  
 집행위원회 의제 상정 및 선정

**\* 사업추진 세부내용 논의**

2단계

7월 28일

**온라인 "청년" 의제 포럼**  
 발제: 박일남 선임매니저(대구광역시 청년센터)  
 강영수 이사(농업회사법인희망토),  
 안지혜 청년(더컴퍼니씨협동조합),  
 김영무 대리(한국부동산원)

## 2020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

문창진((사)대구시민센터 사무국장),  
 이승희(대구시 청년정책과 청년진로팀장),  
 최범순(영남대학교지역협력센터(LINC+) 센터장),  
 김영무 대리(한국부동산원),  
 천금량(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 문경PD),  
 강영수(농업회사법인희망토 이사),  
 이경민(청도군 지역개발계 주무관)

8월 27일

10월 15일

**역량강화 워크숍**  
 영남대학교지역협력센터(LINC+)  
 경북관광두레 협력센터

**\* 향후 방향성 논의**

3단계

10월 22일

**1차 자문회의**  
 경북관광두레 협력센터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11월 26일

**2차 자문회의**  
 경북관광두레 협력센터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02 논의과정

##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2020 ON-LINE 청년 의제 포럼



|                 |  |   |
|-----------------|--|---|
| <b>개요</b>       | 일시 : 2020년 7월 28일 (화) 16:00~18:00<br>진행 : ZOOM 화상회의, YOUTUBE 라이브             |   |
| <b>참여자 : 6명</b> |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br>한국부동산원<br>대구광역시 청년센터<br>농업회사법인희망토<br>더컴퍼니씨협동조합<br>경북관광두레 협력센터 | 손정아 선임매니저<br>김영무 대리<br>박일남 선임매니저<br>강영수 이장<br>안지혜 청년<br>서삼열PD |
| <b>기록자</b>      |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 손주연 매니저   |

### 발언기록

**손정아 선임매니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선임매니저 손정아입니다. 저희가 의견을 나눌 의제는 청년 캠퍼입니다. 지난 7월 3일에 박범계 의원은 정부가 청년들의 캠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캠퍼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청년들이 학업이나 일을 멈추거나 병행하면서 사회봉사, 교육 및 인턴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 기간을 캠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저희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는 청년 캠퍼와 관련된 의제를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캠퍼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청년학교 ‘탄길’과 ‘발품’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의 박일남 선임매니저님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일남 선임매니저**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센터에서 캠퍼 프로그램 ‘청년학교 탄길’을 담당하고 있는 박일남 매니저라고 합니다. 청년센터는 말 그대로 청년이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사람들을 돕는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캠퍼 프로그램의 현황이나 방향 중에서 저는 ‘발전’을 맡게 되었습니다.

캠퍼란 학업이나 업무를 병행하거나 아니면 잠시 중단하고 창조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봉사나 여행 진로 탐색, 교육 인턴, 작업 등의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캠퍼는 학생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직장인들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캠퍼는 학업과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고요. 또 사회가 가진 문제들도 바로 잡을 수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이외의 다른 곳에서 갭이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영국입니다. 갭이어는 영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갭이어는 귀족 가문 자녀들이 견문을 넓히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1960년대에 제도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봉사나 인턴, 여행, 워킹홀리데이 같은 갭이어 프로그램들도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갭이어가 제도로 실행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아일랜드에서도 도입하게 됩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전환 학년제(트랜지션 이어, Transition Year)라는 명칭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율, 만족도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도 갭이어를 도입하게 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중도 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였습니다. 이때 여러 대학에서 갭이어를 도입하면서 대학 중도 포기율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그 후 학교에서 갭이어 제도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2011년도에 갭이어가 도입되고 일부 대학에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 갭이어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갭이어 활동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큰 딸 말리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입학하기 전에 1년의 갭이어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말리아는 갭이어 기간을 통해 영화감독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갭이어가 시작되었던 영국에서도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전에 칠레로 영어 교육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칠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1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본명보다 해리포터의 헤르미온느로 더 유명한 엠마 왓슨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영국 공정무역 패션브랜드 피플트리(People Tree)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갭이어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갭이어를 통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흥미와 적성을 찾고 앞으로의 진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갭이어 프로그램 중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의 ‘딴길 학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딴길 프로그램’, ‘갭이어 프로그램’, ‘청년 사회활동 지원금 진로 탐색형’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데 있어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며 참여한 청년들에게 사회진입 활동 지원금 다른 말로 하면 대구형 청년수당을 제공해주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참여조건은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만19세부터 만34세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 중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100명의 청년이 참여했고, 내일 졸업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개설된 8개 학과별로 8번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8회차 수업 중 6회 이상 출석하고 입학 및 졸업식에 참여하면 수료할 수 있습니다. 수료한 청년들에게는 150만 원의 사회진입 활동금이 지급됩니다. 수당은 포인트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4개월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그 수당으로 갭이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수당을 받고 갭이어 활동을 하게 된 청년들은 활동계획서와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청년들이 그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고 포인트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사회활동 진입과 관련하여 ‘딴길’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고려해봤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나, MIT, 프린스턴 대학, 캐나다의 요크대학교, 일본의 동경대학교, 호주의 맥쿼리대학교, 중국의 북경대학교처럼 갭이어에 관심을 가지고 도입한 곳이 거의 학교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교육 분야에서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센터는 학교마다 갭이어 활동을 권장하고, 학생들이 입학과 동시에 갭이어에 대한 내용을 알게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내 갭이어 프로그램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볼 수 있고 민간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학교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년이 취업을 위해 휴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관심 있는 것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영국에서는 갭이어를 가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갭이어가 사회적 공감대로 형성된다면 청년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갭이어 활동을 하고 진로를 탐색하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손정아 선임매니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청년학교 ‘딴길’과 ‘밭품’ 사업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성에서 갭이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신 희망토의 강영수 이장님 모시고 대화를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강영수 이장 농업회사법인희망토

안녕하십니까? 저는 희망토 농장의 이장 강영수입니다. 저는 의성 안개 쪽에서 ‘청춘구 행복동’이라는 갭이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 청년들이 농촌살이를 통해서 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도시에서 느끼지 못한 새로움도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5월 18일부터 6주 동안 기본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주 쉬고, 기본프로그램을 했던 사람들이 4주 정도 더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목표는 정착입니다.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 문일 수도 있겠지만, ‘청년들이 그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살아본 적이 있을까?’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을 생각해보면 새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농촌과 농업으로 접근했는데 거의 적절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안개 평야라고 불리는데요. 60만 평의 논 중앙에 저희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20명 정도가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이야기 하고 쉬면서 지역에 관심을 가져보고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15명이 참여했고 현재 9명이 정착을 했는데, 친구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러 가지 아이টে임을 실행해보고자 올해까지 지내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갭이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갭이어와 같은 기회와 가능성을 제시하고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알고 있는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친구들 스스로가 알아서 찾아갔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75명 정도가 신청했고 15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놀랐던 점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 많았습니다. 참여했던 친구들의 평균 연령은 28세였는데, 대학생보다는 이직을 생각하는 청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갭이어라는 단어를 너무 강조하지 말고, 청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저희는 진행 중에 있지만, 결론이 나가거나 성과가 나게 되면 갭이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활동들의 방향이나 목적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갭이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었는데, 농촌살이에 대해 말하다 보니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다음에는 농촌, 어촌, 산촌을 연결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손정아 선임매니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네, 감사합니다. 갭이어를 강조하지 말고 청년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자고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갭이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현황과 그들이 갭이어를 통해서 경험한 변화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청도에서 도시근교형 갭이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는 경북관광두레 협력센터 서삼열PD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본인 소개와 경북관광두레 협력센터, 청도 다로리IN조합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서삼열 PD 경북관광두레 협력센터

안녕하세요. 청도에 귀촌한 지 6년 정도 되었고 경북관광두레 청도PD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광두레는 지역의 주민들을 모집해서 지역의 자원을 가지고 관광사업체를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도시근교형 갭이어 추진 사례입니다. 도시 근교라고 하면 대구와 청도를 일컫는 말이고 대구와 청도에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한 갭이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다로리IN’이라는 팀을 창업준비 중이고 갭이어 프로그램도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귀촌한 30대 주부들과 대구 청년이 함께 있는 팀입니다. 제가 아직 준비 단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로리IN’ 창업 완료가 첫 번째 목표입니다. 저희가 사는 마을에 쓰지 않는 보건소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청도군과 함께 리모델링해서 창업할 생각입니다. 1층은 마을카페가 들어가고 2층은 숙소 중 한 동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 공간에서 갭이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층은 교육 공간이 될 것 같고 2층은 갭이어 프로그램의 숙소 중 한 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공간을 갭이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업 공간이 마련되면 우선은 단기 프로그램이나 연계 프로그램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지역청년센터나 산학협력단과 MOU를 통해 그곳의 프로그램 일부를 이 공간에서 진행하거나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청년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필요, 그들의 상황을 많이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은 1년에서 2년 정도 계획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체류형 갭이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서 길면 세 달까지 청도와 대구를 오가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 이 경우 두 가지 방식을 고려 중입니다. 하나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 사업이 있습니다. 1기가 목포 ‘괜찮아 마을’이고 2기가 서천의 ‘삶기술 학교’이고 3기가 이제 문경에서 시작된 ‘가치살자’입니다. 이 사업에 지원해서 프로그램들을 청도나 대구에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대구시와 청도군, 그리고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통한 공기업들, 대구나 청도에서 활동 중인 단체들이 함께 청년들에게 맞는 갭이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어렵겠지만 어디에도 없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자세하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지 않아서 여기 오신 분들의 많은 의견, 도움들이 있으면 준비하는데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안과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아 선임매니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감사합니다. 특별히 갭이어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 도시근교형 갭이어 프로그램은 다른 갭이어 프로그램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서삼열 PD**  
경북관광두레 협력센터

저희가 청도에 산 지 6년째 되는데 청도가 농촌이기는 하지만 경산, 대구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구나 경산에 직장을 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생활방식이 생각보다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6년 동안 청도에서 누렸던 것들을 청년들하고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갭이어 프로그램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운영 중인 갭이어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부분 특정 도시에 한정되어있습니다. 한 도시가 갭이어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 가질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농촌과 도시의 자원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근교형’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이 단어의 의미와 차별성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 중입니다.

**손정아 선임매니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도처럼 도시와 가까운 곳에서 청년들이 여유를 가지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갭이어를 경험하고 계시는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지혜 선생님께서 간단한 자기소개와 갭이어에 대한 생각, 그리고 도시근교형 갭이어와 관련해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부탁드립니다.

**안지혜 청년**  
더컴퍼니씨협동조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갭이어 상태에 있는 안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올초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갭이어 시간인 거죠. 이 시기를 돌아보면서 가장 유익했던 것은 일상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공간, 또 새로운 이들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저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니다. 이것이 갭이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갭이어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직업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거나 또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두 번째로는 우리 일상 이르고 있는 이 도시를 떠나서 농촌으로 들어가서 다른 공간, 다른 삶의 방식을 경험하는 경우입니다. 의성에서 갭이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 강영수 이장님처럼 귀농이나 귀촌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갭이어 프로그램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후자인 것 같아요. 목표 ‘괜찮아 마을’이나 아직도 모든 직장인의 로망이 되고 있는 ‘제주도 한 달 살기’와 같은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대표적인 갭이어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시간들을 계속 모험해 왔는데 제 일상을 완전히 포기하고, 무엇보다도 제 월급을 포기하고 완전히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근교형 프로젝트는 나의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도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경북관광두레 협력센터PD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대구에서 도시근교형 갭이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참여자 중심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측에서 커리큘럼과 일정을 기획한 다음, 참여자를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운영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참여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개인이나 그룹으로 참여할 수 있고,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면 바로 참여하는 형태로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만약 프로그램이 결합되어 있다면 참여자들이 그 공간에 오는 것만으로도 갭이어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느낌이 들도록 계획되면 좋겠습니다. 일상을 보내다가 언제라도 단, 2~3일 연차를 내고 경험할 수 있는 갭이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도시와 완전히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나 비건(vegan)같은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한다면 일상에서 벗어난 경험, 경험으로 얻게 된 노하우 등으로 새로운 삶에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정아 선임매니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취업에 쫓기고, 학업에 쫓기다 보니 자신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렵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도 외에 다른 갭이어 프로그램도 잘 준비되어서 청년들이 좋은 기회를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의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함께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김영무 대리님께서 간단한 자기소개와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김영무 대리**  
한국부동산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부동산원 사회적가치 추진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무 대리라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5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전문 공기업으로서, 최근에는 주택청약 시스템 운영이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서 국민들께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은 제1호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대구지역 발전을 위해서 소셜크라우드펀딩, 범죄환경 개선 사업 등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청년에게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도록 기관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

**손정아 선임매니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감사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인 도시근교형 청년 갭이어 프로젝트에 관해서 대리님의 개인적인 생각과 한국부동산원의 역할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

**김영무 대리**  
한국부동산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처음에는 마을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던 중에 이런 좋은 아이템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입장에서 이 아이템은 청년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기관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시설 부분으로 생각되고,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정아 선임매니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말씀 감사드립니다. 기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시민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늘 기대해왔지만 힘든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갭이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질문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일남 선임매니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갭이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후에 결국에는 자신의 진로 및 적성을 찾고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일남 선임매니저**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이 부분은 ‘딴길’을 소개해 드릴 때 ‘청년사회진입활동 지원금 진로탐색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업 중에서 ‘일 경험 지원형’도 있습니다. ‘일 경험 지원형’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Yes 매칭’과 ‘Pre-Job’이라는 사업입니다. ‘Pre-Job’은 공공기관이나 NGO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또는 NGO 기관에서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Yes 매칭’사업의 경우에는 청년사업장과 청년을 연결해주는 사업입니다. 5개월 동안 급여를 받으면서 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5개월 동안 이 분야가 적성에 맞는지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갭이어 프로그램의 하나로도 볼 수 있겠지만 갭이어를 통해서 관심 있는 분야 생겼다면 일 경험 사업을 통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Yes 매칭’사업의 경우에는 일 경험을 하고 난 다음,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Yes 매칭’사업이나 ‘Pre-Job’사업이 갭이어 이후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정아 선임매니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서삼열PD님께 부탁드립니다. 취업이나 진로 탐색을 위한 시간을 가지면서도 갭이어에 대해 모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어떻게 관심을 끌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삼열 PD**  
경북관광두레 협력센터

우선은 모르는 게 더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갭이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나 지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더라도 탈락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아직 참여 유도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떠오른 생각은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경이나 의성은 사실 꽤 장기적인 체류형 프로젝트인데 이런 프로그램에 앞서서 청년들이 일상에서 가볍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갭이어를 접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도 보다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정아 선임매니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강영수 이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서삼열PD님께서 시작하는 입장에서 사실 동일하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근교형 갭이어 프로그램이 생긴 다음에 현실적으로 지속가능에 대한 의견과 만약 지속가능하다면 청년들의 참여를 어떻게 독려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영수 이장**  
농업회사법인희망토

근교형이라는 말처럼 멀리 가지 않더라도 도시와 가까운 곳에서도 갭이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하고 있는 발일이나 농촌 생활 경험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요즘 뜨고 있는 치유농업, 치유농장, 교육농장의 다음 모델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2박 3일이나 3박 4일 정도 일상에서 잠시 벗어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처음에는 보조사업이 같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자생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갭이어를 위해 투자할 마음이 있다면 훨씬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지원하고, 지원받으면 지속가능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면서 도시 근교에서 활동할 수 있는 형태가 지속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업체의 아이디어나 참여 가능성도 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제실행선언식: 대구, ON-LINE으로 접속하다. 2020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



**개요**  
 일시 : 2020년 8월 27일 (목) 15:15~16:00  
 진행 : ZOOM 화상회의, YOUTUBE 라이브

|                 |                    |          |
|-----------------|--------------------|----------|
| <b>참여자 : 7명</b> | (사)대구시민센터          | 문창진 사무국장 |
|                 | 대구시 청년정책과 청년진로     | 이승희 팀장   |
|                 | 영남대학교지역협력센터(LINC+) | 최범순 센터장  |
|                 | 한국부동산원             | 김영무 대리   |
|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 문경    | 천금량 PD   |
|                 | 농업회사법인희망토          | 강영수 이장   |
|                 | 청도군 지역개발계          | 이경민 주무관  |

|               |             |         |
|---------------|-------------|---------|
| <b>퍼실리테이터</b> | 경북관광두레 협력센터 | 서삼열 PD  |
| <b>기록자</b>    |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 김진희 매니저 |
|               |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 유은정 매니저 |

### 워크시트 내용

문창진 사무국장  
(사)대구시민센터

도시근교형 갭이어 프로젝트 의제 실행을 위해  
 (사)대구시민센터 에서  
 대구시민사회에게  
 청년 네트워크 구성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의 청년 문제도 함께 고민해보고 나아가 갭이어 프로젝트 활동도 연계할 수 있다면 좋을 것

천금량 PD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 문경

도시근교형 갭이어 프로젝트 의제 실행을 위해  
 가치살자(문경시) 에서  
 유휴 공간 활용 청년 지원 사업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대구 청년들이 문경으로 와서 갭이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

### 워크시트 내용

최범순 센터장  
영남대학교  
지역협력센터

도시근교형 캠퍼 프로젝트 의제 실행을 위해

영남대학교 지역협력센터(LINCA) 에서

대학생 공동체 체험과 문화기획 프로그램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도시근교형 캠퍼 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소외, 단절, 고립된 것들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공동체의 경험 쌓을 수 있음
-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

강영수 이장  
농업회사법인희망토

도시근교형 캠퍼 프로젝트 의제 실행을 위해

희망토 근교 농장 에서

농부 일 경험 프로그램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청년들이 근교 농장에서 상추, 배추, 무 등을 직접 심고 섭취, 판매, 가공 까지 해보면서 농업에 접근해볼 수 있음

이승희 팀장  
대구시 청년정책과  
청년진로

도시근교형 캠퍼 프로젝트 의제 실행을 위해

대구시(청도군) 에서

대구청년내일학교 캠퍼 소통, 활동 공간으로 활용(제공)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현재 대구시 청년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청년내일학교프로그램과 청도 다로리 마을을 함께 활용할 필요 있음

김영무 대리  
한국부동산원

도시근교형 캠퍼 프로젝트 의제 실행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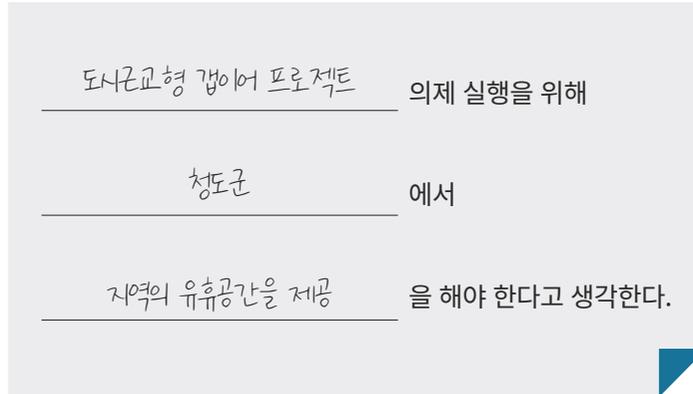
맞춤형 지원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공기관의 네트워크나 예산을 이용해서 의제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게 무엇인가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
-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워크시트 내용

### 이경민 주무관

#### 청도군 지역개발계



## 자유토론 내용

### 의견 최범순 센터장

#### 영남대학교지역협력센터(LINC+)

-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협력방식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도시근교형 갭이어 프로젝트'는 굉장히 중요함
- 프로그램 기획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 등으로 참여하고 싶음

### 의견 천금량 PD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 문경

- 도시근교형 갭이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 도시에서 들어오는 청년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지, 지역민들의 정서 등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함

### 의견 강영수 이장

#### 농업회사법인희망토

-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보다는 청년들이 스스로 본인의 목표를 설정해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유희공간을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유희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
- 대학생에 치우친 '청년'의 개념을 확대시킬 필요 있음



### 워크시트 내용

#### 문제나무 워크시트

##### 파생된 문제

지방소멸  
지역격차  
관계 단절 및 소외  
결과중심의 사회  
도시의 지속가능성 저해

#####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 문제

1. 도시 집중화 현상 도시와 농촌의 상생
2. 다양한 진로·직업을 선택하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 문제의 원인

|                 |                    |
|-----------------|--------------------|
| 삶의 여유가 부족함      | 차열한 경쟁사회           |
| 동일한 가치를 권장하는 사회 | 다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
| 고정된 직업관념        | 부족한 청년 정책          |
| 절대적인 기회부족       |                    |

1

#### 목표나무 워크시트

##### 문제 해결 목표

과정중심 사회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청년 네트워크 형성  
자아탐색  
지역균형발전

##### 문제 해결 목표

1. 도시 집중화 현상 도시와 농촌의 상생
2. 다양한 진로·직업을 선택하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 목표 달성하기 위한 과정

|                 |                      |
|-----------------|----------------------|
| 도시근교만의 탐색 찾기    | 성취감 맛보기              |
|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 제공 | 청도에서 방향하기(삶의 여유 가지기) |
| 팀 프로그램          |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
| 도시근교형 직업 만들기    |                      |

3

2

##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도농 상생 갭이어 프로젝트」 자문회의 1차

### 개요

일시 : 2020년 10월 22일 (목) 10:00 ~ 11:00

장소 :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무실

### 참여자 : 2명

경북관광두레 협력센터

서삼열 청도PD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손주연 매니저

### 기록자

손주연 매니저

## 논의 내용 요약

### 안건1.

#### 도시근교형 갭이어 프로그램: 역량강화 이후 후속 방안

- 갭이어 프로그램의 목적
- 공간, 운영 방안 검토

### 안건2.

#### 협업테이블 주체 구성 논의

- 협업테이블 구성(안)

| 구분 | 실행          | 지원                    | 협업 (참여단체 등)      |
|----|-------------|-----------------------|------------------|
| 1  | 경북관광두레 협력센터 |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 영남대지역협력센터(LINC+) |
| 2  | 청도군         | 청도군<br>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
| 3  | 대구시         | 한국부동산원                | 일로이룸(청년내일학교)     |
| 4  | 지역청년협의회     |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 의제 내다보기 이해하기

---

01. 의제 실행 성과 53P

02. 향후 의제 실행 계획 55P



# 01 의제 실행 성과

도시근교형 갭이어 프로젝트 : 청년 진로탐색활동 지원 및 도농상생 의제 실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① 갭이어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유휴공간 확보
  - 경상북도 청도군 : 다로리 406-7 (약 37평)
- ② 갭이어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자문회의 2회 진행
  - 논의 체계 대상자 논의
  - 21년도 신활력플러스 사업단 실행 연계



## 02 향후 의제 실행 계획

1

갭이어 프로젝트 실행 위한 공간 조성

- 신활력플러스사업단과 경북관광두레(청도)가 함께 갭이어 프로그램 실행 논의
- 행정안전부 청년마을사업 등과 연계 검토
- 21년도 4월 갭이어 실행을 위한 카페 운영



2

갭이어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논의

- 공동기획 프로그램
- 프로그램 협업 주체 발굴



3

갭이어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기관 MOU

- 경상북도 청도군, 영남대 지역협력센터,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 경북과 대구지역의 민관/산학 협력연계 논의
- 대구 청년사업장과 연계하여 사업실행 논의

## 의제 가이드북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갭이어 프로젝트

도농상생 갭이어프로젝트

발행일 2021년 04월 22일

발행처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기획·글·디자인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주최 행정안전부, 대구광역시

주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